

**베르너 팬톤의 의자디자인에 나타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1955년부터 1970년까지 디자인된 의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Verner Pantón's Chair Design

- Focused on chairs designed from 1955 to 1970 -

김진우* / Kim, Jinwoo

Abstract

The Danish furniture designer, Verner Pantón's work is comprised of the appreci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material-wood, which is peculiar to the Danish modernism and its distinctive and unique expressive characteristics. Well known for the application of a wide range of high-tech material accompanied by the bold and primary color used his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pparent in his work by analyzing the origin, background and case study of his design.

The origin including the background of Verner Pantón's design is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Danish Modernism and international design trend, which is revolved around the pop culture and i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Martin Johansen and Poul Hennings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Verner Pantón's chair design, a case study was conducted from 1955 where his debut piece of work, Cone chair was premiered at the Fredericia furniture Fair up through 1970 where Visiona 2 project was presented at the Köln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As a result, the total of 41 chair designs was analyzed by the following four criteria: form, finishing, functionality, and structu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sign by Verner Pantón was based on the experiment of the organic form, his tendency to the pop culture, the concept of space, mobility, simplicity, and sensible creativity of space.

Once criticized for being extemporary and consumptive, nevertheless, the outcome of Verner Pantón's chairs not only introduced the fresh new and positive ideas that have been mass-producing for over 40 years but also they keep on getting upgrad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material.

키워드 : 베르너 팬톤, 의자디자인, 표현특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덴마크 가구디자인의 역사와 특징은 고유의 전통소재인 목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 및 활용으로 요약된다. 인간공학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덴마크의 가구디자인은 근대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인터네셔널 스타일(International Style)과 차별화 된 독특한 데니쉬 모더니즘(Danish Modernism)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한 때 화가를 꿈꿨던 베르너 팬톤(Verner Pantón)의 가구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이러한

조국의 환경 하에 자라난 디자이너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덴마크 디자인의 전통과 차별화 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재료와 대담한 원색사용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디자인 근원 및 배경과 사례를 통해 그의 의자디자인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998년 그가 사망한 이후 덴마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팬톤 이즘(Pantonism)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론 아라트(Ron Arad), 필립 스타크(Philip Starck), 자하 하디드(Zaha Hadid) 등 현대의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베르너 팬톤의 공간과 색채로부터 받은 영향에 관해 언급한 바 있을 뿐 아니라¹⁾, 그의 작품 영역이 가구디자인은 물론, 실내

* 정회원,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수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1)Vitra Design Museum, Verner Pantón, the collective works, p.72

디자인, 조명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을 두루 섭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지극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베르너 팬톤의 디자인 근원과 배경을 파악한 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국 덴마크의 모더니즘으로 받은 국가적 영향, 1950, 60년대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경향으로부터 받은 국제적 영향, 자신의 경험과 교육으로부터 받은 개인적 영향 등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근원과 배경을 파악하였고, 총 41개의 의자디자인 분석샘플을 조사한 결과를 조형, 재료, 구조, 기능 등 4가지 기준에 의해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베르너 팬톤은 1998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약 230여개의 가구를 디자인하였으며 의자디자인은 이중 70%를 넘는 170여 점에 달한다. 테뮌작 콘 체어(cone chair)를 디자인하였던 1955년부터 1970년까지는 그의 작품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였으며 특히 1968년과 1970년은 독일의 쾰른 국제가구박람회(Köln Internationalen Möbelmesse)를 통해 의자디자인만 총 9점의 신작품이 출품되었던 중요한 해였다. 오늘날 그의 명성을 있게 한 대부분의 의자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였으므로 본 논문은 연구 범위를 1955년부터 1970년까지 15년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에 디자인 및 제작된 의자의 모든 사양을 조사하였다. 한편, 개념상 집합체로 명시될 수 있는 제품군²⁾을 3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그 첫 번째 모델인 기본형과 함께 하나의 사례로 묶어 디자인 된 연도순으로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의자의 명칭은 흔히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대신 각 의자의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과 제조사의 국적 발음으로 표기하였고 모델 번호가 있는 경우 함께 표기하였다.

2. 베르너 팬톤의 디자인 배경과 근원

“덴마크 디자인계의 무서운 아이(Enfant Terrible)”라는 별명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한³⁾ 베르너 팬톤이 평생에 걸쳐서 심취하였던 재료와 색채에 대한 실험정신과 그로 인한 결과물은 덴마크 내에서는 종종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진지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었고, 베르너 팬톤 역시 목재사용과 무채색, 수공예를 고집하는 조국의 디자인 전통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

였으며 결국, 1963년 조국을 떠나 바젤(Basel)에서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 1998년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의 생애를 스위스에서 보냈다.

1926년 덴마크의 오덴세(Odense)에서 출생하여 오덴세 폴리테크닉(Odense Polytechnic)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코펜하겐의 덴마크 왕립대학(Royal Academy of fine arts)에서 건축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에 덴마크 건축가 아네 야콥슨(Arne Jacobsen)의 사무실에서 일할 때까지도 가구디자인에 대한 그의 열정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코펜하겐 대학에 개설되어 있던 심리학박사 마틴 요한슨(Martin Johansen)의 강의 “색채, 공간, 비례의 영향(Influence of color, space, proportion)”을 청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내부에 숨어있던 신소재와 색채에 대한 대담한 실험정신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⁴⁾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보다는 가구를 선택하게 된다.

아네 야콥슨의 사무실을 그만둔 이후 구입한 중고 폭스바겐을 “움직이는 스튜디오(mobile studio)”라 칭하며 1955년부터 1958년까지 3년간 전 유럽을 여행하며 가구제조사를 순회하는 동안 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적인 영감의 축적, 신소재와 신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다양한 인간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실현하게 된다.

1958년 다시 코펜하겐에 돌아와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리고자, 4개의 의자 중 3개를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디스플레이 한 후 나머지 한 개의 의자를 바닥에 놓고 자신이 그 의자에 전시기간 내내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프레데리시아 페어(Fredericia Fair)⁵⁾에 자신의 1호 디자인인 콘 체어를 발표하게 된다<그림 1>. 독특한 전시방법으로 인해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그는 성공적으로 조국의 무대에 데뷔하였고 그 이후로도 그가 발표하는 작품들은 전시장에서 가장 반향을 일으키는 작품이 되었다.



<그림 1> Fredericia Fair(1958)의 전시 모습

2.1. 덴마크 디자인의 정체성

베르너 팬톤이 덴마크 왕립학교를 마치고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던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에 덴마크에서는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목재사용 및 수공예적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데니쉬 모던이 팽배하던 시기였으며 이는 베르너 팬톤의 정서와 맞지 않았다. 하지만 덴마크 가구디자인 형태에서 보여지는 유기적 조형성으로부터는 많은 영향을 받았

2)Christine Collin, The Origin of Ranges, Industries francaises de l'Ameublement, Design and Ranges, 2001, p.156

3)Vitra Design Museum, p.22

4)Hanne Horsfeld, Innovations, Fusions, Provoca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8, 1998, p.47

5)1836년 첫 박람회를 시작으로 하여 해마다 덴마크의 항구도시 프레데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박람회, www.fredericiakommune.dk

다. 덴마크 가구의 유기적 조형 특성의 근원에는 초현실주의 작가 중 특히, 헨리 무어(Henry Moore)와 장 아르프(Jean Arp) 등의 영향이 있었고 이들 예술가로부터 받은 영감은 훗날 베르너 팬톤의 가구디자인 조형으로도 표출되었다. 특히 아노 야콥슨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1950년부터 1952년까지는 아노 야콥슨이 안트 의자(ant chair)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때부터 베르너 팬톤은 셸 퍼니처(shell furniture)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의자 디자인(one piece chair design)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포부를 가지게 된다.

2.2. 국제적 미술사조

1950년대 후반 팝(Pop)은 젊고 새로운 삶을 지칭하는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다. 팝 문화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행동에 있어서도 반(反)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술과 디자인에 있어서 팝 문화는 부정형성, 움직임, 감정적, 조형물과 시각적 효과의 혼합, 패턴이 있는 요란스런 색채, 비이성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오늘 즐기고 내일은 버려라”는 슬로건을 내건 삶 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⁶⁾ 이러한 특징은 1960년대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형태와 모듈 형식의 가구, 프리폼(freeform)과 논 폼(non-form)가구⁷⁾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그림 2>.

그의 의자 디자인이 당시 시대적, 지리적 특성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형태, 색채, 재료, 공간의



<그림 2> 프리덤 가구의 사례. 좌로부터 1. 베르너 팬톤의 스토르츠 팔머 시팅(Storz Palmer seating, 1963), 2. 피에르 폴링(Pierre Paulin)의 No. 577 (1967), 3. P. 게티(Piere Gatti)의 사코(Sacco, 1968), 4. 올리비에 모그(Oliver Mourgue)의 딘 시리즈(Diinn Series, 1965)

개념을 거부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었던 근원에는 팝 문화라는 국제적 미술사조의 영향이 있었으며 그의 디자인이 반 데니쉬 디자인적 성향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2.3. 개인적 경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틴 요한슨의 색채학 강의는 베르너 팬톤에게 전혀 새로운 색채의 세계를 열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색채 사용의 경향은 일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북유럽의 무채색 사용의 주요원인이 지리적 환경에 있다는 이론을 접하게 된 베르너 팬톤은 자신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색채에

6) Hanne Horsfeld, 전개서,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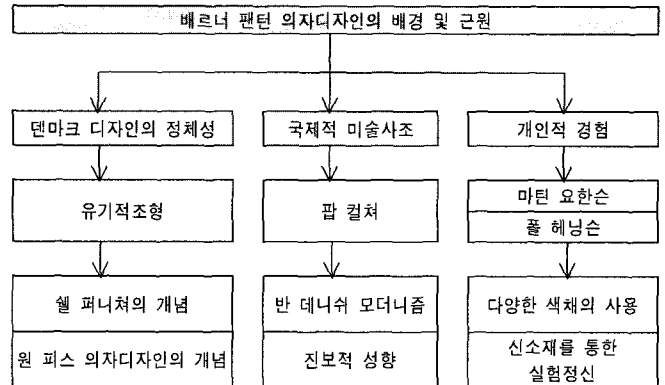
7) 1960년대 중반 올리비에 모그, 피에르 폴링, 피에르 게티 등에 의해 성행하였던 자유로운 형태 혹은 형태가 없는 의자디자인을 칭하는 말로써 베르너 팬톤이 1963년 디자인한 쉬톨즈 팔머 시팅이 이러한 개념의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 본능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5년 가까이 마틴 요한슨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강의에 심취하였고 이는 색채에 대한 그의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재료에 대한 그의 실험정신은 덴마크 건축가 폴 헨닝슨(Poul Henningsen)⁸⁾에 의한 영향이 크다. 1950년 그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연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베르너 팬톤은 폴 헨닝슨으로부터 디자이너가 잊지 말아야 할 할 신소재와 그 사용방법에 대한 호기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이를 그의 의자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그가 돌연변이처럼 목재외의 재료에 관심을 갖고 원색의 대담한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원에는 바로 마틴 요한슨과 폴 헨닝슨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경험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었다.

<표 1> 베르너 팬톤 의자디자인의 배경 및 근원



3. 베르너 팬톤 의자디자인의 사례 및 분석

베르너 팬톤의 의자디자인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가 1955년부터 1970년까지 15년간 디자인 한 의자 디자인의 분석샘플을 조사하여 이를 <표 3>으로 정리한 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현재까지 양산되고 있는 주요 사례 4개와 그의 가구디자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던 1968년과 1970년 켈른 국제 가구박람회의 <비죤나 0(Visiona 0)>와 <비죤나 2(Visiona 2)> 프로젝트에 전시된 이후 양산된 3개의 작품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서술하였다.

3.1. 베르너 팬톤 의자디자인의 주요 사례

(1) K1 콘 체어 (K1 Cone chair, 디자인:1955년, 제작:1958년)

8) 덴마크의 건축가이며 디자이너로서 실험적인 재료사용을 지향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딴 PH Lamp series는 100여개의 모델로 이루어진 조명 디자인의 베스트셀러로써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디자인으로도 유명하다.

흔히 콘 চে어로 불리는 이 의자의 첫 번째 모델은 금속 뼈대에 폼(foam)으로 형태를 만든 후 울 소재의 레드(red) 패브릭으로 외피를 마감한 사양이었다. 1960년 구조를 달리한 와이어(wire) 버전 콘 চে어가 첫 번째 모델과 동일한 프러스 린제(Plus-Linje)⁹⁾사에 의해 양산되었으며 1994년에는 가죽 버전의 콘 চে어가 독일의 폴리테마(Polythema)사에 의해 양산되었다.

의자 전체가 하나의 몸체로 인식되고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의자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চে어(Greek chair)에서 읽을 수 있는 몸을 에워싸는 개념에서 착안 한 것이었다.¹⁰⁾

팬톤의 의자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첫 번째 기본형이 디자인 된 1958년부터 가죽 버전이 디자인 된 1994년까지 36년 동안 총 13개의 모델이 디자인되었다<그림 3>, <표 3의 5>.



<그림 3> 좌로부터 1. 콘 চে어의 개념이 되었던 전통 그리스 চে어의 에워싸는 개념, 2. 콘 চে어 기본형(1958) 3. Heart cone(1959), 4. Wire version(1960) 5. 가죽 version(1994)

(2) S চে어 (S chair, 디자인:1955년, 제작:1966년)

S চে어는 캔틸레버(cantilever) 원리와 단일하고 일관적인 형태, 단일 재료를 사용한 이중곡면성형(double curved laminated wood) 원리가 접목된 의자로서 가구디자이너들이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한 덩어리로 된 의자의 실현이었다. S চে어가 가지고 있는 흐르는 듯한 외곽선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지그재그(zigzag)형 의자와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S চে어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이 처음 제작되었던 1955년부터 독일의 토네트(Thonet)¹¹⁾사에서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중곡면성형의자 및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의자제작의 꿈은 유리섬유로 강화된 성형 플라스틱(polyester plastic reinforced fiberglass)의 개발 및 인간공학적 디자인에 대한 가치추구 등의 개념과 맞물리면서 미국과 유럽의 디자이너와 제작자에 의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S চে어는 이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S চে어는 이후 1981년 스위스의 팬톤 스튜디오에서 아트 চে어(art chair)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작되었



<그림 4> 좌로부터 1. S চে어(1955), 2. 아트 চে어(1981), 3.4. 팬토닉 চে어의 제품군(1995)

고, 1995년에는 노르웨이의 호그(Håg AC)사¹²⁾에 의해 팬토닉 চে어(Pantonic chair)로 양산되었다<그림 4>, <표 3의 4>.

(3) 리빙 타워(Living tower, 디자인:1968년, 제작:1969년)

9)Halling-Koch에 의해 창립된 덴마크의 가구제조회사.
10)Hanne Horsfeld, 전개서, p.57
11)www.thonet.com
12)www.haginc.com

가구가 공간이 되고 공간이 다시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개념에 심취하여 “공간절약형 가구(space saver)”라 칭하였던 리빙 타워를 완성하였다. 리빙 타워는 두 부분으로 된 목재 구조에 레드와 바이올렛(violet) 색상의 합성섬유로 마감된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형태를 이루고 있는 4각 프레임의 내부는 유기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와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비어있는 공간은 4곳의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리빙 타워는 의자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치 및 자세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과 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앉을 경우 친밀하고 비공식적인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의 29>.



<그림 5> 리빙 타워

(4) 팬톤 চে어(Panton chair, 디자인:1958년, 제작:1967년)

S চে어가 아직 양산에 성공하기 전, 팬톤은 S 의자의 유기적 조형성에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접목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찼다. 팬톤 চে어라 이름 붙인 이 의자는 헤엄치듯 유연한 인간공학적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성의 단단함과 구조가 가지고 있는 탄성의 대비를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림 6> 팬톤 চে어

팬톤 চে어의 원리는 단일 금형에 한 번의 공정,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의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써 완벽하게 양산체제에 적합하였으나 디자이너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또 다시 수년의 시간이 소모되어 1958년 첫 프로토타입이 제작된 지 10년 만에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

팬톤 চে어가 지나온 과거 38년간의 역사는 바로 가구디자이너사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958년 베르너 팬톤은 성형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고, 1967년 처음 양산을 성공시킨 스위스의 허먼 밀러(Herman Miller, Swiss)¹³⁾와 독일의 펠바움(Fehlbaum)¹⁴⁾은 그 후 2년간 합성고무섬유의 원료인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tyrene¹⁵⁾ acrylonitrile¹⁶⁾)을 사용하였으며, 1968년에서 1971년까지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을 사용하였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는 미국의 허먼 밀러(Herman Miller, USA)와 펠바움에 의해 폴리스티롤(polystyrol)이 사용되었고 다시 1983년부터 1998년까지는 스위스의 허먼 밀러

13)미국의 허먼 밀러가 유럽의 독일어권 나라를 대상으로 스위스에 설립한 자회사
14)비트라의 창립자인 윌리 펠바움(Willi Fehlbaum)이 설립한 가구제조회사
15)방향족탄화수소의 하나. 분자량 104.15. 스티롤·비닐벤젠·페닐에틸렌이라고도 한다.
16)불포화니트릴의 하나. 분자량 53.06. 시안화비닐·시아노에틸렌·아크릴산니트릴이라고도 한다. 특유의 달콤한 냄새를 가진 무색 액체로 녹는점 -83.55℃, 끓는점 77.6~77.7℃, 비중 0.8060, 굴절률 1.3911이다.

(Herman Miller, Swiss)와 펠바움에 의해 폴리우레탄으로 양산되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독일의 비트라¹⁷⁾에 의해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양산되고 있다<표 2>, <표 3의 6>.

팬톤 체어를 계기로 플라스틱에 대한 팬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으며 그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그의 가구 조형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느꼈다. 마침내 카르텔(Kartell)¹⁸⁾ 등 이태리의 가구회사들은 플라스틱 소재 가구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이태리의 가구들이 1960년대 를 기점으로 하여 대거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표 2> 팬톤 체어 재료와 제조사의 변천

연도	재료	제조사
1958	성형 플라스틱(moulded plastic)	베르너 팬톤 스튜디오
1967-1968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tyrene acrylonitrile)	허먼 밀러(Herman Miller, Swiss) 펠바움(Fehlbaum, Germany)
1968-1971	폴리우레탄(polyurethan)	
1971-1979	폴리스티롤(Polystyrol)	허먼 밀러(Herman Miller, U.S.A) 펠바움(Fehlbaum, Germany)
1983-1998	폴리우레탄(polyurethan)	허먼 밀러(Herman Miller, Swiss) 펠바움(Fehlbaum, Germany)
1999-현재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비트라(Vitra, Germany)

3.2. 1968년, 1970년 쾰른 국제 가구박람회

독일의 화학회사 바이어(Bayer)¹⁹⁾가 기획 및 후원한 쾰른 국제 가구박람회의 비조나 프로젝트²⁰⁾중에서 베르너 팬톤은 1968년의 <비조나 0>와 1970년의 <비조나 2>를 맡아 진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은 섬유분야에서 합성소재와 합성섬유의 활용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로서 독일의 아크릴 섬유회사인 드래론(Dralon)²¹⁾과 유럽 최고의 폼 제조회사인 메첼러(Metzeler)²²⁾가 이 전시를 함께 후원하였다. 팬톤은 두 번의 전시를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학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능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모두 9점(비조나 0에서 2점, 비조나 2에서 7

17)스위스 베른(Bern) 태생의 빌리 펠바움이 독일의 바일 암 라인(Wiel am Rhein)에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스위스 바젤에 본사(Vitra International)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14개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967년 미국의 찰스와 레이 임즈(Charles & Ray Eames)의 가구를 필두로 하여 조오지 넬슨(George Nelson),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 필립 스타크, 제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1977년 아들 로프 펠바움(Rolf Fehlbaum)이 경영권을 이어받았으며 1989년에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을 건립하였다.

18)www.kartell.it

19)www.bayer.com

20)쾰른 국제 가구 박람회 중 라인(Rhein) 강에 띄워진 로렐라이(Lorelei) 보트의 내부를 “미래의 삶(Living tomorrow)”이라는 주제 하에, 선정된 디자이너가 신기술을 이용한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으며 조 콜롬보(Joe Colombo), 올리비에 모그 등 당시 이름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였던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였다.

21)www.dralon.com

22)www.metzeler-profiles.com

점)의 의자 신제품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4점(비조나 0에서 1점, 비조나 2에서 3점)이 양산되었다. 이 전시와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아방가르드적인 삶의 개념을 제시한 진보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1세기 가구디자인의 주요 기능은 인간의 웰빙(well-being), 휴식, 회복을 돕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²³⁾하여 합리적인 기능을 가진 가구(수납용도의 가구 및 전자제품)는 모두 배제하고 감성적인 개념에 근거한 가구로 공간을 창출하였다.

(1) 클러스터 시팅 시스템(cluster seating system, 디자인:1968년, 제작:1968년, 비조나 0)

이 작품은 2개의 공간에서 전시되었으며 한 곳은 방전체가 레드, 다른 한 곳은 옐로우(yellow) 색상의 패브릭, 조명으로 마감된 공간에 동일 색상의 울이 굵은 드래론 패브릭으로 마감된 볼(ball)형태의 제품이 자유롭게 디스플레이 되었다. 각각의 볼 중 몇 개는 포도송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자의 조형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자세와 움직임을 유도하여 그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었던 비공식적인 만남(informal social gathering)을 실현하고 있다<표 3의 28>.



<그림 7> 클러스터 시팅 시스템

(2) 웨이브 빌딩 블록(wave building block, 디자인:1969년, 제작:1970년, 비조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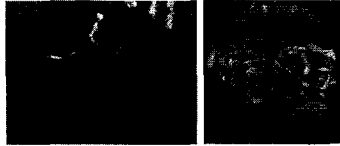
7종류의 형태와 사이즈의 블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용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배치됨에 따라 다양한 공간형성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베르너 팬톤은 이 블록을 이용한 두 개의 작품 3-D 카펫(3-D carpet)와 판타지 랜드스케이프(fantasy landscape)를 선보였으며 이들은 전시기간 중 가장 큰 호응을 일으켰다. 3-D 카펫은 바닥에 깔려있는 평면적인 카펫이 3차원의 형태로 변화한 모습이었고 판타지 랜드스케이프는 3-D 카펫으로 이루어진 바닥에 수직적인 공간 요소를 첨가하여 탄생한 작품이었다.

삼각뿔 형태를 한 3-D 카펫의 좌판부분은 바닥으로부터 리드미컬하게 물결치며 올라오므로 앉거나 혹은 기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물결치는 바닥 표면의 카펫 마감은 잔디를 암시하고 있으며 붉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정절을 상징하는 등 이국적이며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판타지 랜드스케이프는 목재로 이루어진 외각 프레임과 강도의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폼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내면의 상부는 양피지로 마감되어 있으며 천정부분과 함께 마감재 안쪽에 조명을 설치하였다. 판타지 랜드스케이프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 깊숙한 곳에 아마추어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제작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입부

23)Vitra Design Museum, p.173

분보다 더욱 다양한 색채사용이 강조되었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스피커를 감추어 놓아 소리의 근원을 찾기 어렵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적인 장치를 이용해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세와 감각에 호소하였고 이를 통해 감성적인 공간감을 전달하였다 <표 3의 36, 37>.



<그림 8> 3-D 카펫과 판타지 랜드스케이

(3) 로킹 체어(roking chair, 디자인:1969년, 제작:1970년, 비조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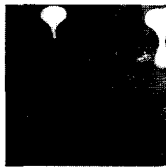
블랙 유리섬유 플라스틱(black fiberglass plastic) 구조위에 드래론 패브릭으로 마감된 고무 폼으로 이루어진 이 모델은 의자의 몸체가 다리에 의해 지탱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자세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디자인 실현이었다. <비조나 2>에서는 블랙 베이스에 바이올렛 패브릭 사양으로 전시되었으나 블랙 베이스에 체리 핑크(cherry pink) 패브릭 마감 혹은 전체적으로 체리 핑크 패브릭으로만 마감된 사양 등의 제품군이 있다<표 3의 40>.



<그림 9> 로킹 체어

(4) 소프트 라인 소파(soft line sofa, 디자인:1969년, 제작:1970년, 비조나 2)

성형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구조에 드래론사의 패브릭으로 좌판과 등받이 부분을 마감한 이 의자는 스탠드형 화이트(white)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레드색상으로 연출된 공간에 사용되었다. 이 공간은 다분히 미래적이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소파와 함께 스툴(stool), 테이블(table), 서랍장이 시리즈로 디자인되었다<표 3의 30>.



<그림 10> 소프트 라인 소파

3.3. 베르너 팬톤 의자디자인의 분석

(1) 조형

베르너 팬톤의 의자디자인의 사례를 조형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41개의 분석샘플 중 63%에 해당하는 26개의 사례에서 유기적인 조형성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크게 3차원적 조형, 생물 형태적 조형, 상징적 조형성이 두드러졌으며 3차원적 조형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팬톤 체어, S 체어, 사쉴 체어(sasse chair)<표 3의 25>, 셸 체어(shell chair)<표 3의 38>, 소프트 라인 등이 있으며, 생물 형태적 조형의 사례로는 피코크 체어(peacock chair)<표 3의 11>, 모듈러 체어(modular chair)<표 3의 12>, 스투츠 팔머 시팅<표 3의 15>, 본 시팅 시스템(bone seating system)<표 3의 31>, 비조나 2 시팅(Visiona 2 seating)<표 3의 12>, 아나토닉 체어(anatomic chair)<표 3의 33>등이 있고, 상징적 조형의 사례로는 클러스터 시팅 시스템, 웨이브 빌딩 블록, 이지 체어(easy chair)<표 3의 34>등을 들 수 있다. 조국 덴마크의 전통적인 유기적 조형

성과 초현실주의적 영향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의 적극적인 도입 등은 그의 의자디자인이 유기적 조형특성을 지닐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재료

베르너 팬톤의 의자디자인에 나타난 재료는 크게 의자의 구조재, 마감재, 색채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재는 크게 합성수지, 목재, 금속 등 세 가지로 나타나고 마감재는 도장 마감과 지정 패브릭 혹은 가죽 마감 등으로 나타난다. 합성수지구조는 총 16개의 사례에서, 금속 프레임 구조는 총 13개에서, 목재 및 성형합판 구조는 총 6개의 사례에서 나타나 덴마크의 전통적인 소재인 목재보다는 합성수지와 금속 등 주로 당시 개발된 신소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채사용에 있어서는 레드가 24개의 사양에서 사용되는 등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는 바이올렛 22개, 블루(blue) 14개 순이었으며 그 외에도 화이트(white), 블랙, 오렌지(orange), 옐로우, 체리 핑크 등 주로 원색이나 채도가 높은 색상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베르너 팬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색채에 대한 감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대담한 원색사용으로 표출되었다.

(3) 구조

베르너 팬톤의 의자디자인은 의자의 다리가 인간의 몸을 정형화된 상태에서 지지하는 전형적인 의자구조를 탈피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S 페어와 팬톤 체어에서 나타나는 캔틸레버식 구조, 콘 체어, 이지 체어 등에서 나타나는 원 레그 구조, 쉬톨즈 팔머 시팅 등과 같이 의자의 자유로운 형태가 그대로 의자의 구조가 되는 프리폼 구조, 프라잉(flying)처럼 의자의 다리 대신 제 3의 구조재를 공간의 천장에 매달아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웨이브 빌딩 블록과 같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쌓거나 조립할 수 있는 구조 등이다. 이렇듯 다양한 구조를 통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의자디자인을 추구하였다.

(4) 기능

베르너 팬톤은 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초월한 감성적인 기능을 추구하였다. 의자가 곧 공간이 될 수 있게 하여 공간에서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절약해 주었고 사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의 방향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자유분방한 자세만 큼이나 개방적이고 비공식적인 만남과 대화가 가능하게 하였다. 판타지 랜드스케이프나 클러스터 시팅 시스템 등에서는 어머니의 자궁 속을 연상시키는 조형, 색채, 마감재를 통해 태아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감성을 유도하는 등 그의 디자인에는 공간과 인간 사이의 고찰 및 감성의 표출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표 3> 베르너 폰트 의자디자인의 사례 및 분석

의자명(모델명) (디자인연도/ 제작연도)	사 례						분 석												
	작품사진	색채	재료/구조	치수	제조사		조형			구조				기능					
							유기적	기하학적	기타	캔틸레버식	원레그	프린트	제333구조	쌓거나조립	기타	공간정렬	비례조각(인간비율)	감상적	기타
1 Bachelor(3350) (1953/1955)		black, brown, yellow, red, blue, turquoise	금속 프레임에 패브릭 혹은 스웨이드 가죽	H:73, Seat H:38, W:52, D:68	Fritz Hansens Efff. (Denmark)		○												○
2 Pneumatic cushion furniture (1954/1960)		various	투명 혹은 색상이 있는 플라스틱	H:35, W:50, D:50	Plus-linje (Denmark)			○											
3 Tivoli(3140) (1955/1955)		rattan의 자연색	금속프레임에 크롬도금판, 좌판과 등받이는 rattan	H:82, Seat H:50, D:54	Fritz Hansens Efff. (Denmark)		▲												○
4 S chair(S275) (1956/1966)		마감 목재의 색상 (various)	곡목성형합판에 착색 혹은 니스마감	H:82, Seat H:44, W:46, D:52	Thonet (Germany)		▲		○										○
5 K1 Cone chair (1958/ 1958)		red, orange, black, blue	금속 프레임에 줄 소재의 패브릭마감	H:81, Seat H:46, W:57, D:65	Plus-linje (Denmark), Gebrüder Nehl (Germany), Vitra(Swiss)		◆				○								○
5-1 Cone chair 제품군 (1958-1994)		K2 Cone wire	bar stool	bar stool w/back rest	low stool	Chair K4													
	1959																		
		cone chair	cone chair	cone chair	cone chair-type A	cone chair-type B	cone chair-type C												
	1978						1994												
6 Panton chair (1958/1967)		blue, black, red, orange, white	스티렌 아크릴로니움, 폴리스티롤,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H:81, Seat H:44, W:49, D:57	Herman Miller(USA) & Fehlbarm (Germany), Herman Miller(USA), Vitra(Swiss)		▲		○										○
7 Easy chair C1(1959/1959)		various	금속 프레임에 크롬판, 패브릭으로 감싼 고무 폼	H:73, Seat H:42, W:66, D:57	Fritz Hansens Efff. (Denmark)		○				○								○
8 Kaufeld system furniture (853/854) (1959/1959)		violet, black	스틸 판, 크롬 판, 패브릭	H:unknown, W:50, D:50	Hans Kaufeld (Germany)		○				○								○
9 Trumpet chair (1959/1960)		쿠션 패브릭색상 (various)	steel wire 구조에 크롬판, 패브릭으로 감싼 폼 쿠션	H:72, Seat H:30, D:62	Plus-linje (Denmark)		○												○
10 Acryglas (1959/1960)		아크릴 색상	아트릴 유리 금속	H:75.5, Seat H:35.5, D:75	Plus-linje (Denmark)			○											○
11 Peacock chair (1950년 후반/ 1960)		단색 혹은 다양한 쿠션의 색상 (various)	스틸 와이어 프레임, 크롬판, 패브릭으로 감싼 폼	H:65, Seat H:28, W:95, D:95	Plus-linje (Denmark)		●												○
12 Modular chair (1950년 후반/ 1960)		various	스틸 와이어 프레임, 크롬판, 패브릭으로 감싼 폼	H:74, Seat H:38, W:50, D:68	Plus-linje (Denmark)		●			○									○
13 Cube system 61(1961/1961)		black	아크릴 유리	H:37.5, W:37.5, D:37.5	Plus-linje (Denmark)		○												○

의자명(모델명) (디자인연도/ 제작연도)	사 례					분 석															
	작품사진	색채	재료/구조	치수	제조사	조형			구조				기능								
						유기적	기하학적	기타	캔틸레버식	원래그	프리폼	제3의구조제	쌓거나조립	기타	편안	비공식적인만남	감성적	기타			
14	France & Son furniture system (1960/1960)		쿠션의 색상 (various)	목재 프레임, 패브릭	H:35, W:100, D:67	France & Son (Denmark)	○						○	○							
15	Storz & Palmer Seating (1963)		마감 패브릭의 색상 (various)	성형합판 구조에 패브릭으로 감싼 폼	H:70, W:63, D:140	Storz & Palmer (Germany)	●				○								○		
15-	Storz & Palmer Seating 제품군																				
		1963																			
16	Flying (1963/1964)		마감 패브릭의 색상 (various)	성형합판 구조에 패브릭으로 감싼 폼	H:50, W:154, D:72	Kill Gmbh (Germany)	▲						○						○		
17	Seating system (S402) (1963/1967)		마감 패브릭의 색상 (various)	금속프레임, 코폼판, 패브릭으로 감싼 폼	H:98.5, Seat H: 37, W:104, D:88	Gebrüder Thonet (Germany)	●				○									○	
18	Modular Seating (420) (1963/1967)		마감 패브릭의 색상 (various)	금속프레임, 코폼판, 패브릭으로 감싼 폼	H:64, Seat H: 37, W:90, D:83(S 420)	Gebrüder Thonet (Germany)		○						○						○	
19	Party set (1965/1965)		red, green, black white	성형합판 프레임 레커 혹은 스테인	H:52, Diam:35-50.4	A.Sommer (Germany)		○						○					○		
20	Seating system 27F (1965/1966)		white, orange, red, blue, green	성형합판 구조에 지장색상 도색	H:80, W:58, D:51	A.Sommer (Germany)		○							○					○	
21	Kill modular furnishing system (1965/1967)		brown, yellow, red, orange, blue, turquoise	폴리우레탄 구조에 벨벳마감	high chair의 경우 H:108, Seat H:36, W:72, D:72	Alfred Kill and Metzeler Schaum (Germany)		○						○					○		
22	Schöner Wohnen living unit (1966/1966)		red	스틸 프레임, 코폼판, 목재, 폼, 나이론 마감	H:250, W:198, D:198	Behr Möbel Gmbh (Germany)		○						○					○	○	
23	Dux seat (1966/1967)		blue, violet, red, cherry pink	듀블러 스틸, 코폼판, 폼, 패브릭	H:95, Seat H:35, W:100, D:95	Dux Möbel (Germany)	▲							○						○	
24	System furniture (1967/1967)		various	금속프레임, 코폼판 혹은 레커 도장	H:94, Seat H:45, W:51, D:56(Chair S 431 P)	Gebrüder Thonet (Germany)		○							○					○	
25	Sasse chair (1967/1967)		마감목재의 색상 (various)	곡목합판, 듀블러 스틸, 코폼판	H:83, Seat H:46, W:55.5, D:61	Sasse (Swiss)	▲				○									○	
26	Living Unit (1967/1968)		violet	폴리우레탄	H:135, W:180, D:120	Metzeler Schaum (Germany)	●							○					○	○	
27	Flying cup (1967/1968)		마감 패브릭의 색상 (various)	성형합판, 패브릭	H:25(shell) H:54 Diam:90	Bayer AG (Germany)	◆							○					○	○	
28	Cluster seating system (1968/1968)		red, yellow	고무 폼, 패브릭	various	Bayer AG (Germany)	◆							○					○	○	
29	Living tower (1968/1969)		violet, red	목재 구조에 합성섬유로 마감된 폼	H:200, W:200, D:67	Herman Miller(USA), Vitra(Swiss), Stega(Swiss), Fritz Hansen (Denmark) Vitra(Germany)	●							○					○	○	

첫째, 유기적 조형성에 있어서 그는 어느 야콥슨과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조형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쉘 퍼니처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의자디자인을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3차원적 조형, 생물형태적 조형, 상징적 조형 등으로 표출되는 유기적 조형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조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근원에는 조국 덴마크의 오랜 전통으로 받은 조형적 영향과 신소재,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실험정신이 함께 하고 있었다.

둘째, 팝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1950년대 말 젊고 새로운 삶을 지칭하는 키 워드였던 팝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료와 색채사용의 폭을 넓혔다. 신소재를 이용한 실험과 제조사와의 협업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20세기 의자디자인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팬톤 চে어가 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의자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셋째, 공간적 개념의 표출에 있어서 그는 정형화되고 진부한 의자디자인 및 의자가 놓인 공간을 혐오하여 의자를 수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가구와 실내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의자가 놓이는 공간을 절약해 주는 것을 넘어 의자에 앉게 되는 사용자의 눈높이와 방향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 간의 관계를 보다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었으며 비조나 전시를 통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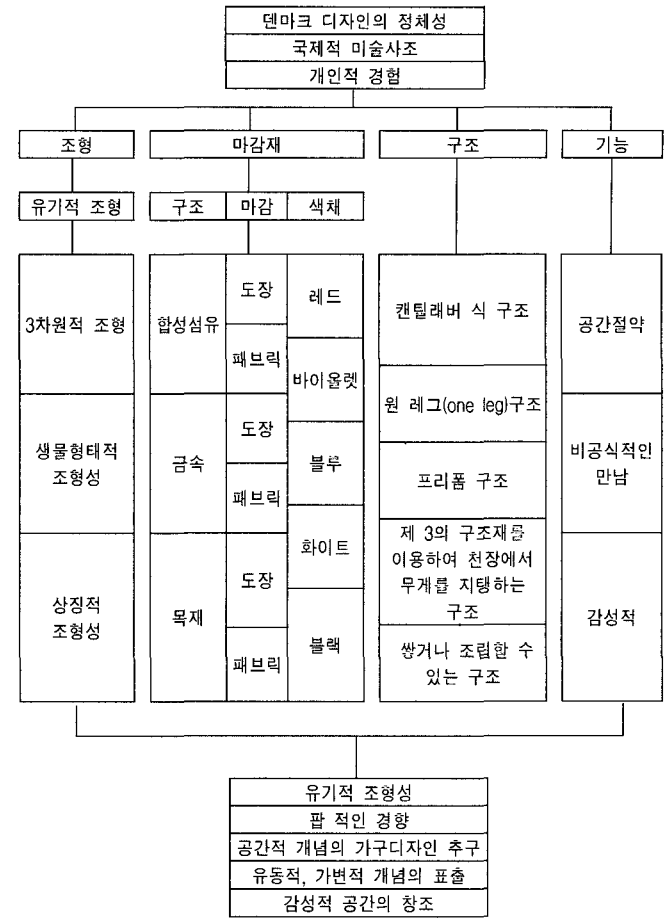
넷째, 인간에게는 앉거나 서 있는 자세 외에 제 3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팬톤은 의자디자인에 유동적, 가변적인 개념을 적용하였다. 사용자가 쉽게 의자의 위치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의자를 사용하는 자세 역시 원하는 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이는 이후 프리폼 가구, 눈 폼 가구 등의 개념으로 이어졌다.

다섯째, 감성적 공간의 창조에 있어서 그는 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의외에 감성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간과 인간, 인간과 감정과의 관계를 의자디자인 개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작지만 소중한 요소를 놓치지 않았으며 조형, 색채, 재료는 물론 빛과 소리 등을 이용하여 이를 극대화하였다.

베르너 팬톤의 작업은 한때 즉흥적이고 소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의자들은 오늘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양산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재료가 발달함에 따라 오히려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68년과 1970년 쾰른 국제 가구박람회를 통해 그가 제시하였던 "미래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며 향후 베르너 팬톤의 실내디자인, 조명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4> 베르너 팬톤 의자디자인의 근원, 배경, 표현특성



참고문헌

1. Alexander Vegesack, 100 Masterpieces from the Vitra Museum Collection, Vital Learning Corp., 1996
2. Charlotte & Peter Fiell, Scandinavian Design, Taschen, 2002
3. Charlotte & Peter Fiell, 1000 chairs, Taschen, 1997
4. Industries francaises de l'Ameublement, Design and Ranges, 2001
5. Noritsugu Oda, Danish Chairs, Chronicle Books, 1999
6. Vitra Design Museum, Verner Panton, 2000
7. 조경훈, 1960년대 이후의 플라스틱 가구 발전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8호, 2001
8. 최병훈, 유기적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4호 2004년
9. Hanne Horsfeld, Innovations, Fusions, Provoca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8, 1998
10. Bård Henriksen, Arne Jacobsen and his laminated chairs, Scandinavian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7, 1997
11. www.architonic.com
12. www.design-museum.de
13. www.fredericiakommune.dk
14. www.kartell.it
15. www.panton.ch
16. www.thonet.com
17. www.vernerpanton.com
18. www.vitra.de
19. www.vitra.com